

# 한동훈 '尹 독대 요청' 유출 놓고 친윤·친한계 신경전

### 친윤계 "韓, 언론 플레이 잦아"... 친한계 "공개한 적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유출되자 친윤계의 불쾌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대의 가장 큰 목적은 중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나기도 전에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항상 이권이 조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며 "일을 성사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정해진 일정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며 한 대표 측을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여러 종류의 정치인을 봤지만, 저렇게 알뜰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독대 신청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보자"며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이 열리면 이를 계기로 얼마든지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독대 수용 여부로 초점이 옮겨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를 거절하면 양측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윤 대통령이 불통 비판을 떠안을 수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을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독대 요청이 알려진 시점이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친 직후 귀국길이라는 점에도 덧붙여 설명하는 분위기다.

통상 해외 순방을 마치고 열리는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는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마련이지만 자칫 독대 문제로 이 같은 노력이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는 독대 요청이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의 한 인사는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독대 요청 여부를 합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도 "독대를 통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굳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쪽에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소통할 중요한 기회를 놓고 양쪽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독대 요청에 대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사위 '검찰 법 왜곡죄' 신설 공방

### 고의 바꾸기 등 법률 왜곡 적용시 처벌...국힘 반발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격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고, 이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건전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바꿨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추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곡성군수 재선거 최봉의 후보 확정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23일 제 195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 최봉의 후보를 확정, 공천했다. 최 후보는 곡성 출신으로 재무설계, 투자 등 중견기업 임원

을 지낸 경험과 곡성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 의지가 높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최 예비후보는 "책임 있는 여당 후보로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곡성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조계원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 엉터리"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이사회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고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의원에 따르면 축협 '2024년 예산(안) 보고서'와 지난 8월 기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총공사비는 8억원, 토지취득비는 17억원, 조달가능 재원은 57억원 등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이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에서 보고한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토지취득비 230억원 ▲공사비 1268억원 ▲설계비 22억원 ▲감리용역비 21억원 등 총사업비는 1541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축협은 조달 가능 재원으로 926억원을 보고하면서 사업비 부족분 615억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승인 요청했고, 이사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보고자료와 국회 제출자료를 비교하면 대형 양반 폭락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공사비는 오히려 1268억원에서 1247억원으로 20여억원이 나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과 자체조달 금액을 합친 재원조달 수입은 991억원으로, 8개월 전 이사회 때보다 57억원이나 늘었다. 심지어 토지취득비는 8개월 사이 17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9월 업체를 선정해 확정된 감리비는 1억원 늘었다.

축협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 부족분에 대한 금융권 대출 승인요청 때 자체수입은 65억원 가량 줄었고, 마이너스 대출금은 57억 가량 늘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